**참된 복음의 가장 무자비한 원수들 /릭 조이너**

****

† 참된 복음의 가장 무자비한 원수들

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을 때

그는 그가 가진 소유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했다.

그 이하의 그 어떤 것도 그 젊은이를 구원할 수 없었다.

마찬가지로 그 이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.

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셨다.

눅1433. 그와 마찬가지로,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너희 중에서

그가 누구이든,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.

사람들로 하여금 “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

우리는 복음이 거의, 또는 전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까지

복음을 깎아 내렸고

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복음이 갖는 구원의 능력 자체를 소멸해 버렸다.

이런 것들은 자기중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채워주는 거짓복음들로서

그 이름이 복음으로 불리우던지 다른 어떤 철학으로 불리우던지

태초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으며 그 이래 영속적으로 세상을 망상에

빠지게 해 왔다

이제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며

쉽게 결단을 한 이들은 이 길이 견딜 수 없도록 어려운 길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.

이들은 다가오는 날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

참된 복음의 가장 무자비한 원수들 중의 일부가 될 것이다.

제자의 길이 요구하는 댓가를 낮춘 것으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.

주께로 와서도 여전히 자기(자아의)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

결국 생명을 잃을 것이다.

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참으로 자기 목숨을 잃은 이들만이

다가오는 날 견디며 서게 될 것이다.

(릭 조이너가 쓴 "추수" 중에서...)